

Is Hypothyroidism a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?

Kim, Sin Gon (MD, PhD)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
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
Seoul, Korea

갑상선기능저하증은 전 인구의 1~2%,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은 5~10%에서 발견될 정도로 비교적 흔한 내분비질환이다. 갑상선호르몬 결핍은 대사과정을 지연시켜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데, 심혈관 계통, 특히 죽상경화증과의 관련성이 여러 역학연구 및 기전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.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이상지질혈증, 혈압의 변화, 혈관내피손상, 그리고 심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등을 통해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.

따라서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게 갑상선호르몬을 투여하는 중재연구를 통해 여러 심혈관 위험인자가 호전됨을 확인하였으나, 잘 고안된 대규모의 임상시험을 통해 실제 심혈관질환을 줄일지 여부는 증명된 바 없다. 특히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치료 여부 및 적응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.

본 발표에서는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을 살펴본 후, 임상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치료해야 할 환자군과 치료방법에 대해 논의한다.